

한영교회 온 가족 예배

2023.11.6(월)~11(토)



하나님이 주신다는 가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우리 가정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원망하기에 앞서

[욥기 3:1-26]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3:1-26]의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께 찬양하거나 감사할 제목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원망만이 가득한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점을 생각하게 할까요?

1. 하나님께 토로하기 욥은 며칠 동안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상이 없는 독백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나머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의 말에 귀 기울이시며 언제나 듣고 계심을 잊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고통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느끼는 심정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혼잣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토로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2. 말씀을 통해 해석하기 욥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이 빛이 아니라 어둠과 죽음의 지배를 받았다면 차라리 좋았겠다고 탄식합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은 항상 주관적이어서 바른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른 답을 주며, 우리 경험을 이해하고 해석할 틀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 알고, 경험하고, 확실하게 인지하십시오. 그제야 우리는 우리 경험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바로 보고,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감사의 제목 찾기 욥은 생일의 밤을 저주하면서, 자신이 잉태되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초자연적인 존재가 그 밤을 저주해 자신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았겠다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가진 것입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가로 새 생명까지 얻은 자입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더라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더라도, 오직 고통만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는 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눔 1. 현재 나의 삶에서 진실하게 하나님께 토로할 것이 있나요?(고통, 슬픔, 회개 등)

2. 현재 나의 삶에 감사의 제목들을 5가지 정도 생각해 봅시다.

기도 오늘도 여전히 저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형제가 고난 중에 아파할 때

[욥기 4:1-2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1-21]의 말씀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야 할 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 함께 짐을 져야 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하지 말아야 할 심한 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곁에 있는 사람과 고통을 나눌 때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이 남의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도 언제나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의 고통을 곧 내가 겪을 수 있는 고통으로 알고, 마음을 다해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든 고통을 다 공감하고 위로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2.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처럼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 없고 정직한 자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까? 오히려 고난이 찾아와 힘듭니까? 선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다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신의 권세를 사용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악한 시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과 부가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때론 욥의 경우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난과 질병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비록 고난이 와도 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찬양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1. 주변에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분에게 어떤 위로의 말(문자, 카톡)을 할 수 있을까요?

2. 지나온 시간 동안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겨낸 시간들이 있었나요?

기도 고난 당한 자들과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엘리바스의 충고

[욥기 5:1-27]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5:1-27]의 말씀입니다.

엘리바스는 1-2장의 천상의 일을 모른채 경험과 환상을 통한 계시를 바탕으로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고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장에서 엘리바스는 그 다음 단계의 조언을 욥에게 건넵니다. 고난을 벗어나고 이겨낼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의 해결책은 신앙인들이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위로의 말이기도 합니다.

1. 욥의 하소연을 비난하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 욥의 하소연이 정당하지 않다고 단정합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거룩한 자 중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처지라고 여깁니다. 욥은 미련하여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여서 그 자녀들이 성문 재판정에서 사정없이 박살나듯 순식간에 죽은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땅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욥 같은 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불꽃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듯 자연스럽게 예정된 창조질서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그는 이제 대놓고 친구에게 독설을 퍼붓습니다.

2. 이제라도 하나님께 의탁하라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하시는데, 욥의 고난도 그 같은 기이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지혜로운 자는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고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는 분이라고 하여 욥이 그런 자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 악행을 반성하면서 스스로 입을 다문 채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가난한 자는 구원하시니 이제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이 열릴 것이라고 욥이 공감하기 어려운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께 대한 엘리바스의 흠 잡을 데 없는 진술이 친구 욥의 죄악을 더욱 부각시켰고, 결론적으로 친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3.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욥이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한때는 욥이 의롭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기까지 시차가 있었기 때문이며, 지금 욥이 살길은 민첩한 회개뿐이라고 엘리바스는 믿고 있습니다. 그는 산뜻한 회개신학을 만들어 욥에게 강요했습니다. 엘리바스는 회개해야 욥에게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라고 했지만, 세상에는 회개가 필요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징계가 복이 되기도 하지만, 징계가 아닌 고난도 있습니다.

나눔 1. 위로로 시작하였으나 결국 공감이 아닌 충고, 판단, 지시를 했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2.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힘겨웠던 경험에 대해 나눠봅시다.

기도 하나님, 고통당한 자 앞에서 말을 아끼고 그와 함께 울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방이 막혔다는 생각이 들 때

[욥기 6:1-30]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6:1-30]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매우 큰 고난을 당하면 크게 낙심해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너무 무거울 때 욥은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괴로움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3장에서 경솔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더 설명합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독화살을 쏘셨습니다. 내 몸에 그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2. 위로가 없을 때 욥은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꿀이 없어서 들나귀가 울고, 꿀이 없어서 소가 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도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는 따뜻한 위로, 함께하는 마음, 격려하려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먹기 힘든 음식에 비유했습니다. 음식이니 몸에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싱겁고 맛이 없어서 꺼리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힘들어 하는 지체에게 함부로 충고하지 않았습니까? 충고하기 전에 진심으로 슬퍼해 준 적이 있습니까?

3. 죽고 싶을 때 욥은 죽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원이요 기도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자들 중에도 이런 생각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 기력이 없어서 마치 이미 죽은 것처럼 느껴지고, 이제 더 이상 자신 안에는 이 상황을 헤쳐 나갈 아무 능력이 없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동안 주님과 나눈 교제와 그로 인한 평강과 기쁨은 다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언제는 내 안에 있는 도움과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면 그 힘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눔 1.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 정말 사랑한다면 충고하기 전에 진심으로 함께 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 보게 하소서.

고된 삶이 빠르고 덧없이 흐를 때

[요기 7:1-21]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 7:1-21]의 말씀입니다.

종종 우리 삶이 너무나 고되고 덧없이 흘러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빠르게 흘러가서 돌이킬 수 없는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1.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욥은 자신이 샅이 없는 품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는 구더기와 흙덩이만 있고,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기를 반복할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으며,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모든 것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 고민하고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은혜로운 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샅이 없는 품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서 일감도 받았고, 일한것 이상의 놀라운 선물도 받는 복된 사람입니다.

2. 짧지만 영원히 이어져 있습니다. 욥은 사람의 삶이 너무나 빠르고 짧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날이 날실 사이를 빠르게 움직이는 베틀의 북보다 빠름을 안타까워합니다. 빠르게 흘러가니 가진 것을 누릴 시간도 적고, 쌓을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고 빠른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짧고 빠르지만 곧 다가올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누리고 쌓으며 살아가도록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며, 영원한 나라를 섬기며 사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삶은 그 자체를 주목하는 자에게는 짧고 빠르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준비할 만큼 충분한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3.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한번 스올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모든 것이 끝이라고 외칩니다. 한번 죽으면 그에게 익숙한, 소중한 모든 것과도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분을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도 그 뒤를 이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용기를 줍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도 이길 것을 알기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실패하거나 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때 죽음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나눔 1. 인생이 고난과 고통 끝에 얻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 살면서 실패해본 경험을 나누고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기도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요기 8:1-22]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요기8:1-22]의 말씀입니다.

신자에게도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고난 가운데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 하십니다. 그러나 현실 가운데 모든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보응이나 심판은 아닙니다. 신자는 고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때, 죄로 인한 고난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또는 빌닷처럼 다른 신자를 쉽게 정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 인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굳게 믿습니까?

2.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자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은 신자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자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죄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생각할 때 죄의 크기와 그 결과인 심판의 엄중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자는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신자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십니까? 고난은 회개할 기회입니다

3.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자의 고난을 인간의 교훈으로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훈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교훈을 신자에게 진리인 양 가르치는데, 이는 흰쌀밥에 독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는 사람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고난의 참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는 고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믿는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누구를, 또한 무엇을 더 신뢰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 신뢰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눔 1.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2. 내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보세요.

기도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